

현장과 시각

국방부의 '역사 되돌리기'



박지경

서울취재팀 차장

국방부가 18일 국회 국방위원회 안규백 의원에 제출한 '고교 교과서 한국 근·현대사 개편 요구' 자료에 따르면, 전두환 군사정권의 민주화 탄압을 정당화하도록 하고 박정희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을 미화하도록 했다.

국방부는 또 '전두환 정부의 갑압정치와 저항'이라고 돼 있는 소재목을 '전두환 정부의 공과와 민주화 세력의 성장'으로, '헌법 위에 존재하는 대통령'이라는 제목을 '민족의 근대화에 기여한 박정희 대통령'으로, '이승만 정부의 독재화'라는 제목을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확립시킨 이승만 대통령'으로 바꿀 것을 각각 요구했다.

국방부는 이어 노무현 대통령이 정부 수반으로서 공식사과하고 한나라당마저 박근혜 전 대표 시절 사소한 '제주 4·3사건'에 대해서도 '좌익 폭동'으로 규정했다.

국방부는 '미군정 수립 직후 친일파들의 대거 특세'라는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도 "미군정은 남한의 과도 입법위원을 구성하여 자치활동을 도입하는 등 한국인이 민주적 자치경험을 쌓도록 하였다"라고 바꾸라고 요구, 미군정을 필요 이상으로 미화하고 친일파를 감쌌다.

이 같은 국방부 입장을 보면서 섬뜩한 느낌이 드는 것은 왜일까. 두 대통령의 독재와 군사정권을 거처면서 수없이 왜곡된 역사를 10여 년 동안 간신히 바로 잡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정권이 바뀌자마자 국방부가 갑자기 교과서 개정 요구를 하는 이유는 뭘까.

국방부의 이번 요구는 국가의 근본과 국민의 상식을 흔들 가능성이 크다. 제주 4·3 사건을 '좌익세력의 반란'으로 규정해야 한다는 의견은 국회의 '4·3사건 특별법'과 정부의 '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를 부정하는 것이다. 이승만, 전두환 정부에 대한 찬양도 '이승만 독재'를 무너뜨린 4·19 혁명정신과 5·18 정신, 6월 항쟁 정신을 모독하고 사실상 부정하는 것이다.

물론 이를 역사적 인물과 사건에 대한 관점이 다를 수는 있다. 그것은 정치적 이해와 역사관이 좌우한다. 일제 식민지에 대해서도 '한국 근대화에 상당한 기여했다'고 평하는 역사학자도 있으니 말이다.

하지만, 이 같은 민감한 사안을 들고 나와 교과서 개정을 요구하는 주체로 국방부는 어울리지 않는다. 뉴라이트 성향의 학술단체가 이 같은 교과서 개정 요구를 들고 나왔다면 이렇듯 섬뜩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jkpark@kwangju.co.kr

김정남 '김정일 건강악화' 시인

"세월은 못 속여"... 집단 지도체제 암시 발언도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장남인 김정남(37)이 베이징에서 중국 정부 관계자들과 만나 "세월은 속일 수 없는 것"이라고 털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중국 정권 소식통들에 따르면 지난주 북한에서 베이징으로 온 김정남은 부친 김정일 위원장의 건강상태를 묻는 중국 정부 관계자들과의 질문에 "염려 해줘야"면서 "혹시 부친의 건강이 악화될 가능성은 우려하는 것으로 보였다"고 전했다.

소식통들은 "김정남이 부친의 건강이 상실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지는 않았지만 김 위원장의 건강이 악화된 것은 사실이나 중병에 걸리지 않았음을 시사한 것"이라면서 지난 7월 말 평양으로 돌아간 김정남이 베이징으로 나올 수 있었던 것은 평양 체류 당시 건강이 나빠진 김 위원장의 병세가 호전됐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들은 또 "김정남이 '당분간 베이징에 머물면서 평양을 왔다갔다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면서 "김 위원장의 건강이 악화될 가능성은 우려하는 것으로 보였다"고 전했다.

이에 앞서 김정남은 김 위원장의 후계 구도와 관련해 "부자 권력세습을 3대째 이어갈 수 없다"면서 집단지도체제를 암시하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남은 평소 베이징에서 지인들과 만나 있는 자리에서 "정체가 재건되지 않으면 최고 지도부가 무슨 욕을 들을지 모른다"면서 "후계자 문제에는 관심이 없고 시켜도 안한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베이징의 외교 소식통들은 "김 위원장이 집단지도체제를 공개적으로 선언하지는 않았지만 이미 산하에 위원회를 구성하고 군부 중심의 집단지도체제를 시험 가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美 주택시장 회복 안되면 세계 금융쇼크 계속된다”

금융시장 하루만에 붕괴 "공적자금 투입은 미봉책"

국제 금융시장의 위기가 쉽게 진정되지 않고 있다.

AIG의 구제책이 16일 발표된 직후만 해도 금융시장 진정에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지만 하루 만에 시장에는 찬바람이 불고 있는 것이다.

시장에서는 파산보호 신청을 한 리먼브러더스의 다음 타자가 누가 될 것인가에 대한 불안감이 여전히 은행들은 서로 돈을 빌려주기도 꺼리는 등 자금시장 경색 현상이 깊어지고 있다.

이날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 산업평균 지수는 전날 증가보다 449.36포인트(4.06%)나 급락한 10,609.66을 기록, 지난 2005년 11월 이후 최저치로 떨어졌다.

유럽 증시도 하락세를 면치 못했다. 영국 FTSE 100 지수는 전날보다 2.25% 하락한 4912.4로 장을 마쳐 지난 2005년 8월 이후 처음으로 5000선 밑으로 떨어졌다.

은행들이 서로를 믿지 못해 돈을 빌려주지 않으려고 하면서 리보(런던

은행간 금리)는 9년만에 최대폭으로 올랐다.

반면 안전자산으로 자금이 몰리면서 금과 은 가격은 폭등해 투자자들의 불안감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줬다. 이날 뉴욕 상업거래소(NYMEX)에서 12월 인도분 금값은 전날보다 온스당 무려 70달러(9%)나 급등한 850.50달러에 거래를 마쳐 1980년 이후 최대폭으로 올랐고 12월 인도분 은 가격도 온스당 11%나 급등한 11.68달러를 기록했다.

금융위기의 지속은 물론 세계 경제 전반에 어려움을 가중시킬 것으로 우려되고 있고 금융시장이 안정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금융시장이 안정되면 모기지 부실률도 금융기관에 엄청난 손실을 가져오면서 신용위기를 유발할 미 주택시장의 침체가 법칙이 될 것으로 보인다.

캘리포니아주립대 석좌교수인 이후 최치로 교수는 부동산 가격이 안정되고 경제성장률이 이렇듯 이후에나 안정될 수 있는데 주택시장 침체는 내년이나 되어 풀릴지 모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며 금융시장이 정상화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했다.

미·영·일·캐나다 등 세계 6개 중앙은행

1,800억달러 더 푼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FRB)가 일시적 통화 교환에(중앙은행 통화스왑) 한도 증액을 통해 전 세계 금융시장에 1천800억달러의 유동성을 추가 공급하기로 했다고 18일 발표했다.

한 공동 성명을 통해 "우리는 계속해서 긴밀히 협력할 것이며 지속되고 있는 (유동성 고갈) 압박에 대응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환에 한도 증액으로 ECB는 FRB 펀드로부터 기존 550억달러의 두 배인 최대 1천100억달러까지를 인출, 달러와 부채에 시달리는 유로존(유로화 사용 15개국) 외내 은행들이 공급할 수 있게 됐다. 은선 400억유로를 발행할 계획이다.

FRB는 BOJ의 교환에 한도를 최대 600억달러, BOE의 교환에 한도를 최대 400억달러, SNB의 교환에 한도를 최대 270억달러로 늘렸고 BOC에 대해서는 최대 100억달러까지 인출할 수 있도록 했다.

FRB가 5개 주요 중앙은행들에 대해 통화 교환에 한도를 증액, 시장에 달러화를 대규모로 공급하도록 한 것은 선례가 없는 '특별조치'다. 6개 중앙은행들은 이례적으로 발표



뉴욕증시는 미국 정부가 전날 밤 하루 만에 입장을 바꿔 미 최대 보험사 AIG에 850억달러의 긴급 구제금융을 제공하기로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뉴욕증시는 17일 속절없이 추락했다.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 증권인들. /연합뉴스

국민연금, 美모기지 투자 500억 손실

국민연금이 공적자금 투입이 결정된 미국 모기지업체인 패니메이와 프레디맥 주식에 500억달러를 투자해 사실상 전액 손실을 보게 됐다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 소속 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연금이 위락사를 통해 9월 현재 이들 두 회사 주식에 총 4천608만4천965달러 규모의 투자를 하고 있다"면서 "이것이 이같이 주장됐다."

이와 함께 과반수는 주가가 상승한 미국 투자은행 리먼브러더스의 서울지점이 국내의 금융회사와 맺고 있는 파생상품 거래 계약 잔액은 지난 7월 말 현재 67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리먼의 과반수에 이르는 것으로 인해 환매나 상환을 연기하는 주가연계펀드(ELF)가 속출하는 등 국내 펀드투자자들에게 미치는 파장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전 의원은 "두 회사는 부채가 자산을 초과해 공적자금 투입이 결정돼 사실상 주식이 휴지조각이 됐다"면서 "지난 16일(현지시간) 현재 주가는 시장에서 패니메이는 48센트, 프레디맥은 25센트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프레디맥 주식 평균 매입가는 61.04달러로 국민연금은 1천여만달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한편 이날 자산운용업체에 따르면 리먼브러더스 사태와 관련 상환이나 환매를 연기한다고 공시한 ETF(클래식펀드 제외)는 13개인 것으로 파악됐다.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주)옥션코리아. Includes contact info: 062)222-8446, 010-3666-8446. Lists various properties like '근린시설', '주택', '아파트', '상점', '모지', '숙박시설', '대규모(빌라)', '농가권현시설', '기타' with details on location, area, and price.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대중법률(주). Includes contact info: 062)225-0099, 010-9525-2335. Lists various properties like '아파트', '주택', '상점', '모지', '숙박시설', '대규모(빌라)', '농가권현시설', '기타' with details on location, area, and price.